

축구부 '춘계대학연맹전' 우승

경기후 학생 4천여명 승리대회 가져

본교 축구부는 지난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있었던 '90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에서 동아대를 제치고 70년 이후 14년만에 대학축구 정상에 올랐다.

본교 축구부는 연장전까지 이 날 경기에서 본교 축구부는 후반 21분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4분 뒤 김인환군의 도움을 받아 김상우군이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다.

본교 축구부는 연장전까지 이어진 1백20분의 접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GK 주용국군의 활약으로 동아대를 4대2로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경기가 끝난후 응원하던 4천여명의 본교생은 전경철의 호위를 받으며 동대문운동장에서 학교까지 행진하는 '승리대회'를 가졌다.



고향교지 '평가회' 실시

고향교지편집위원회는 지난 25일 발간된 제 35호교지에 대한 '평가회'를 오는 7-8일 양일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평가회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음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7일에는 서울캠퍼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8일에는 수원캠퍼스 체육과학교육관 시청각실에서 실시한다.

수원 학생회 관공사 45% 진척 우천으로 외부미장공사 어려움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신축공사가 현재 45%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8월말 완공예정인 이번공사 진척도를 부분별로 보면 조적공사(벽돌쌓기) 1백%, 외부미장공사 40%, 내부내장공사 80%, 방수공사 70%, 천정공사 30%, 알미늄창호공사 50%, 계단돌공사 20%, 단열공사 1백%, 전기

후반 21분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4분 뒤 김인환군의 도움을 받아 김상우군이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다.

본교 축구부는 연장전까지 이어진 1백20분의 접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GK 주용국군의 활약으로 동아대를 4대2로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경기가 끝난후 응원하던 4천여명의 본교생은 전경철의 호위를 받으며 동대문운동장에서 학교까지 행진하는 '승리대회'를 가졌다.

'경영대 분리' 진통 계속 수원 중복학과 등 미묘한 문제 겹쳐

경영대분리문제가 학교측과 본관점거농성중인 정경대 경영학과 등 3개학과와 의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듯 하였으나 미묘한 문제가 겹쳐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측은 정경대 경영학과 등 3개학과 학생들이 제시한 '1대학 2학부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보였지만 수원 중복학과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다.

학교측은 또 서울 학생들에게 양캠퍼스 해당학과 교수·학생 및 서울·수원 기획실장, 정경대·사회대 학장을 포함한 '경영대학 건설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논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비단 정경대 3개학과는 "농성기간중 학교측의 경영대분리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했으나, 본질적으로 경영대 분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대 경영, 무역, 회계학과 학생회는 지난 29일 경영대 분리문제의 중복학과 해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학교측에 전달했다.

계절학교 7월9일 개강 10명 이상 신청 과목만 실시

양캠퍼스 교무처는 오는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법과대학관에서 90학년도 계절학교를 개설한다.

10명 이상 신청과목에 한하여 개설되는 이번 계절학교의 개설대상과목은 공통교양, 계열교양, 물리및 실험, 화학및 실험, 생물 및 실험이다.

수강신청은 수원캠퍼스의 경우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캠퍼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양캠퍼스 교무과에서 접수한다.

수강료는 학점당 3만원이며, 수강신청료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캠퍼스 경리과로 납부하면 된다.

수원교섭위 교육백서 발간

수원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방학중에 '교육백서'를 발간하여 2학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교육의 현실에 관한 글을 주요내용으로 발간된 이번 백서에는 전공교섭위 교섭위의 전망 등에 대한 글도 게재된다.

한편 교섭위는 자연과학계교과제 환불대금을 오는 7월까지 과 학생회에서 대상학생들에게 지급한다.

신방과 '통일아리랑' 노래한마당 3위입상

서울지역 '동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열린 '동부지구 통일노래한마당'에서 본교 신방방송학과가 3위에 입상했다.

이번 행사에서 본교는 지난 대회기간중에 열린 '자주경희 통일노래한마당'의 3위입상팀까지 참가했으며, 참가팀은 무역학과 '청년전사', 신방방송학과 '통일아리랑', 사법대 '진혼가'이다.

언어교육원 외국어 특강 실시

본교 언어교육연구원(원장:박병수교수)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어회화 및 일본어 강좌를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언어교육원(AV센터내에서) 실시하며 초·중·고급 영어회화, 초급일본어 등의 강좌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본교재학생 8만원, 타교생 및 일반인은 10만원이다.

경희 T.V. (가칭) 준비위원회

경희 T.V. (가칭) 준비위원회는 오는 5월 22일부터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모임 참가자를 모집한다. 준비모임을 강화하여 건설준비위원회로 재편하기 위해 실시

서울, 오늘부터 추가 예비군교육

예비군연대본부와 학생예비군 '훈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90학년도 학생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학생을 위한 추가일정을 오는 6월 8일까지로 정했다.

4, 7일, 5, 8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 대책위는 "항토사단의 사정과 학

사회대 민속식당 폐쇄

수원캠퍼스 학생회는 지난 1일 사회대앞 가마골 민속식당'을 폐쇄했다.

2학년 학생회관 식당이 들어 서면 폐쇄할 예정이었으나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의 보일러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내려

인복위 방학중 토플강좌 개설

서울캠퍼스 인복복지위원회는 하계방학중 TOEFL 등 특강을 실시한다. 오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1일2회(8시30분, 10시50분)



취재노트

재료가 생겼다는 소식 버스를 기다리던 鄒형들이 끼여들 즐기신 후 콩초를 인도에 버리는 일이 속출. 결국 승차장인지 재떨이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이에 某鄒형 콩초를 버릴 때 버스를 추종하여 이를 복사기급으로 돌리면 좋겠지'이라는 고무적인 제안으로 많은 鄒형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선언.

◇...또한번의 발음들
매운 바람에도 꽃꽂이 일어서는 풀잎이 들시그리운 날, 새색시같은 소식이 있어 귀기울여보니
사학과에 이어 국문학과도 복녘방학학습담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계획을 착실히 진행중이라고
자! 우리 鄒형들의 뜨거운 열의만이 저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소이다. 힘냅시다!

◇...알음으로 말하리라!
서천필의 밤하늘을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였던 사신이 있었다기에 노트수 확인한 즉
두명의 鄒형이 야심찬 시기에 '鄒담'을 연상케하는 모습으로 활보했다는데...
두분 鄒형님들! 총칭한 자태로도 범한세상을 알 품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만큼은 가상으로 최소한 지성인이려면 앞뒤 가릴것(?)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의 생색 내기
민생고로 피눈물을 흘릴 때도 나는 한조각 땅을 찾아 방황하는 한마리의 하이어나'라는 노래를 목청높이 부른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전 정부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진매각한 땅중에 상당수가 쏠모였는 땅이었다고.
대기업의 높은분들, 이전 한조각의 땅에 배고픔을 느끼는 하이어나가 되기 보다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더 배고픔을 느끼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대중세 후유증
某학과 강의가 폐강될 위기에 처했다는데...
노트수 알아본 바, 鄒형들의 대중세 당시 즐겼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빈의자만이 쓸쓸한 강의실을 지키고 있다 하니...
노트수 365일 대중세로 백수담을 건설하자'라는 구호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하우탈리 본업에 충실하길 바라오.

◇...승차장이 재떨이로 변한 까닭은?
서천필 鄒형들이 애용하는 학교버스승차장에 대형

朔風

검도 용어에 守破離라는 말이 있다. '守'는 곧 원칙을 배우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 '破'는 배운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원칙의 형태를 깨쳐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창조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로 '離'라는 것은 스승의 문하를 떠나 또 다른 세계의 경지, 즉 자기 일문을 이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守破離라는 용어는 반드시 검도에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예술의 세계에서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삶 자체에서도 우리는 이 守破離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할 때가 많이 있다.

오늘날 확실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

"되새겨야 할 守破離의 교훈"

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성급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배우야 할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깨쳐야 할 것을 분명하게 깨친 다음에 자신의 세계를 이룩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 배움을 익히기도 전에 자신의 세계를 이루기라도 한 양 자기 목소리를 높여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다. 이런 사회, 이런 문화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거저이 판치는 사회, 깊이가 없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런 깊이 없는 내면의 세계를 가진 목소리가 우리들의 사회에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접촉 사고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허황한 공약을 일삼는 후보가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는 일이 도처에서,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 또 구매자를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 여부는 결정되고 있다. 이 모두가 守破離의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물만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면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

얼마 전 나는 신문에서 평생 할미란을 만들어온 노인 형제를 인간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하고 스스로 마음을 위안한 적이 있다. 이 노인 형제들이야말로 배우고 깨치고 자신의 세계를 이룬 守破離의 완성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눈이 아직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희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분이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守破離의 과정을 충실히 지켜 각자의 완성된 세계를 이룩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특히나 민심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요즘 정치인들에게야말로 守破離의 교훈은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닐는지..... (재주)

학원소식

교수동정
신현대교수 도일
▲신현대(한외대·한외학)교수 =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임상정보 수집자 도일
▲이상언(의대·외학)교수 =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학회 참석 및 병원 방문차 도미 ▲유지홍(의대·외학)교수 = 오늘부터 14일까지, 국제 호흡기학회 참석차 도미
▲한태룡(자연대·유전공)교수 =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학술논문발표차 캐나다 방문 ▲김보영

숙득
본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정필원(경영·87) △김삼훈(무역·84) △이격희(법학·87) △신지명(경영·87) △박영미(치의·84)

분실
숙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박상철(정의·4) 지난 31일, 도서관 2층 로비에서 분실 ◆지갑=이영호(경영·2) 한외대 화정실에서

교수동정
교수 = 오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스페인문학 및 지역구차 스페인방문 ▲김동술(자연대·환경)교수 = 오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학회참석 및 자료수집차 미국방문

동문모임
파주향우회
【수원캠퍼스】▲파주향우회 = 오는 5월 5시 30분 1호관휴게실 ▲봉화·영주·영동향우회 = 오는 5월 10시 30분 1호관휴게실 ▲경기·영동향우회 = 오는 5월 10시 30분 2호관 학생식당 ▲전주해성

교 = 오는 5월 10시 30분 1호관 휴게실 ▲문일교 = 오는 7월 10시 30분 1호관휴게실 ▲부천향우회 = 오는 5월 10시 30분 1호관 휴게실

공권력의 세종대 학원침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죽음으로 군자관을 사수한다"

한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모두가 직접 뽑는 지금,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선출에 대학 전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세종대의 지극히 정당한 총장직선제요구가 독재정권의 군화발에 의해 침탈당하고 더럽혀지다니...

지난 6월 2일 새벽 4시 48분 11개 중대 1천3백 여명의 폭력경찰 투입에 의해 학원자주의 성지 세종대가 침탈당하고 총학생회장 등 1백 여명의 사수대 학원들이 강제 연행되었지만 세종대 학원자주화 투쟁의 대오는 학원자주완전승리 그날까지 한치도 물러섬없는 총진격·총반격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최후탄·지탈탄 난사와 소방호스로 퍼붓는 물세례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으로 군자관을 사수한다" "끝까지 투쟁하자"라며 걸기했던 세종대의 학원들의 불타는 학원자주화 투쟁의지를 바라보십시오.

뜨거운 동지에 속에 숨구치는 눈물과 비리재탄과 문교부 그리고 저 간악한 민자당에 대한 치열한 분노로 결사항전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세종대 학원들을 바라보십시오.

6월 6일
6월6일은 세종대 학원자주투쟁을 청년학도의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지원해야하는 「연대 최고의 날」입니다.
온갖지지와 연대의 방도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냈습니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 연합회